통권 No.53 2019년 5/6월호
CNP CNP 차앤박피부과

#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3년 지기 차앤박피부과는 세계 일류, 은하계의
일류이기보다는 고객님의 마음 속에 일류가 되겠습니다.

## 대상수상

차앤박피부과



2019
대한민국메디컬헬스케어
대상 수상

전문병의원 분야
피부클리닉 부문




CNP CLINIC
차앤박피부과의
스마트한 모공관리 솔루션



CNP STORY
청춘의 푸르름을 이야기하다
안산점 한은비 메디컬코디네이터




CNP NEWS
2019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 대상
현장스케치

이제 다시 모공이다

# 차앤박피부과의 스마트한 모공관리 솔루션

기습적으로 더워지는 요즘, 정직한 피부는 피지분비가 왕성해진다. 과다한 피지분비는 모공을 막히게 하면서 다양한 트러블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자외선과 같은 외부환경을 한번에 집어 삼킬만큼 겉잡을 수 없는 땀과 피지의 향연으로 피부는 초토화가 되기 쉽다. 다시 한번 모공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다 알지만 따져보면 잘 모르는 모공

모공을 흔히들 땀구멍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털구멍이다. 한자를 보면 좀더 명쾌해진다. 털이 자라 나오는 구멍과 같아서 '모공(毛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모공은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기도 하며 얼굴에만 약 2만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공과 땀구멍을 잘 구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이나 피지분비의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피부는 항상성이 있어서 요즘처럼 여름이 시작되면 땀과 함께 피지분비도 왕성해진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땀을 배출하기 위한 땀구멍과 피지를 배출하는 털구멍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구멍임에도 모공만 유독 관리유무에 따라 더 넓어지는 이유는 피지와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의 평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또한 모공은 한번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조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모공 자체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이완된 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공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화와도 관계가 있다. 노화의 과정 중 중력으로 피부는 처진다. 이때 모공 역시 처지게 된다. 한번 늘어난 모공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늘어나 더 커보이기까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대부터 피지조절 화장품과 철저한 클렌징으로 피부건강 및 모공상태를 유지하되 30대부터는 시술을 통한 스마트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공 잔혹동화의 서막이다.

## 난데없는 내 피부의 피지 척도 TEST

(피부 상태에 따라 피지 조절하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피부의 모공 상태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내 피부의 피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한다. 단, 100% 믿어서는 안된다. 전문의를 만나러 가기 전 테스트임을 기억하자.

**CHECK LIST**

- ☐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르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
- ☐ 세안 직후는 당기는 감이 있지만 스킨만 발라도 금새 촉촉해진다.
- ☐ 왕성한 피지 분비로 인해 피부가 번들거린다.
- ☐ T-ZONE부위는 모공과 블랙헤드가 눈에 띄는 편이다.
- ☐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올라온다.
- ☐ 세안 후 전혀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 ☐ 모공이 넓은 편이다.
- ☐ 오후 2-3시 눈썹 사이를 만져보면 손에 기름기가 묻어 나온다.
- ☐ 기름종이를 즐겨 사용한다.

**0개**

피지 조절 보다는 보습에 신경 쓴다. 크게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로션타입의 보습제와 수분 에센스 등을 꼼꼼히 발라준다.

**1~2개**

OIL-FREE화장품이나 여드름 유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등 화장품 선택만 잘하면 피지 조절이 가능하다.

**3~5개**

피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화장품은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주 1-2회 딥클렌징을 하며 주 1회 정도는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마스크도 해주는 것이 좋다. 블랙헤드가 있는 사람은 블랙헤드 제거용 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개 이상**

피지 분비가 상당한 편으로 OIL-FREE나 여드름 유발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등 스킨케어에 신경을 쓰더라도 상태가 심각한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진단과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피지를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모공이 커지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피지 척도를 알았다면 기본적인 모공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숙지해보도록 한다.

### 1 모공 관리의 기초 공사는 세안

일주일에 한번은 팩이나 스크럽제를 이용하여 모공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피지를 말끔히 씻어낸다. 건성피부일 경우 주1회, 지성피부일 경우 1~2회가 적당하다.



우선 클렌징 전에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고 클렌징 후에 남아있는 피지나 노폐물은 약산성 세안 비누나 폼 클렌저를 이용해 거품을 낸 뒤 부드럽게 문질러 없앤다. 그런 다음 클렌저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고 찬물로 마무리한다.

### 2 클렌징 후엔 피지조절이 필수



클렌징과 세안으로 모공을 청소한 후에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는 피지 조절이나 모공수축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이용하되 수분이 많은 젤 타입이나 로션을 선택한다.

### 3 잘못된 습관은 모공을 키운다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도 모공에 나쁜 습관이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공이 커지는 원인이다. 또한 여드름을 제대로 치료 받지 않아도 모공이 커지므로 여드름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맡겨 조기에 치료해야 모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차앤박피부과의 스마트한 모공관리 솔루션 : 프락셔널고주파&하이드로필

### SOLUTION 01 프락셔널고주파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으로 피부를 빈틈없이 채워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에 탁월하다. 그 원리는 프락셔널 고주파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들어간 후에 피부 진피층 부위에 순간적으로 고주파(RF)를 직접 방사함으로서 노화되고 손상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표피 화상이나 통증의 우려 없이 핀포인트 RF 에너지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한데 깊이와 배열이 일정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의 모공의 정도나 주름의 깊이에 따라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3일 정도 붉은기가 유지되며 2일후부터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콜라겐이 촘촘하게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서 모공은 몰라보게 조여져 아기피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번의 케어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 모공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게 필요하다. 한달 간격으로 3회 진행할 것을 권한다.

CNP SOLUTION

### SOLUTION 02 하이드로필

하이드로필은 기본적으로 피지 및 블랙헤드, 각질을 청소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안면개선 효과는 부가적으로 따라 온다. 여기에 더해 유효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화이트닝 수분증진을 위한 시술의 전처치로도 시술 효과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 단독치료로도 피부를 대청소를 한듯한 말끔함으로 다음날 화장이 매우 잘 받아 입소문을 통해 D-DAY EVE (디데이이브)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날 하루 전에 받는 시술로 인기다. 또한 압출없이 치료하는 시술로 블렉헤드 제거시의 통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 권할만 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에 노폐물이 엉겨붙기 쉬운 계절에 발생하는 트러블 방지에도 큰도움이 된다. 모공속 미세먼지는 제거하고 철벽방어할 수 있는 수분을 충전해주기 때문이다.

시술후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회복기간이 따로 필요없어 더욱 인기다.



# 일희일비하지 않기,
# 경 청,
# 리 더,
# 그 리 고
# 청 춘

한은비 코디네이터

당신에게 가장 찬란했던 청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각양각색의 청춘의 기억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갈 것이다. 또는 앞으로 다가올 가장 빛날 청춘의 어느 부분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다.
웹진 공식 질문인 '당신에게 차앤박피부과는?'에 '청춘'이라고 답한 안산 차앤박 피부과 한은비 메디컬코디네이터(이하 MC). 인터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한은비 MC는 잘 웃었지만, 은근한 낯가림이 있었고, 달변은 아니었다.
하지만 안산 차앤박피부과의 이야기가 나올때면 다부진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청춘으로 시작해 청춘으로 마무리된 푸르른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 일희일비하지 않기

한은비 MC는 입사하고 나서야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병원임을 알았다고 한다. 몇 곳의 병원에서 짧은 시간 근무했지만 각 파트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차앤박피부과는 처음부터 남달랐다. 현재는 고객맞이의 접점인 데스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메디컬코디네이터의 역할도 그러하지만 데스크에서는 원내 전반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고객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대체로 데스크 업무의 능숙한 수행여부가 병원 전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한은비 MC는 그 무게감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

"(웃음) 특별할 건 없고,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처음엔 시스템이 좋아서 열심히 익히고, 계속 근무하다 보니 동료들과 너무 잘 맞고, 원장님은 참 좋으셨어요. 근무하면서 하는 일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때마다 배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그녀가 주어진 업무의 무게감을 이겨내는 묘안이었다.

## 리더, 필요로 하는 고객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

한은비 MC는 관리자가 부재시에는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고객님들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부터인가 절 찾습니다. 성심껏 불편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소해드리려고 해요. 격앙되고 불편함을 호소하던 고객님들도 조금은 익숙한 직원을 보면 진정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도 고객님과의 불편사항이 제 선에서 해소되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저 오래 본 직원이라 고객들이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동안 변함없이 피부지기로 직무를 수행해 온 한은비 MC의 존재감을 부인할 수 없다. 신입직원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선배로서의 책임감이 들었고,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고객님들의 눈인사에 스스로 옷매무새를 매만지게 된다고 한다. 안산 차앤박피부과 구성원으로서 고객이나 동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녀다. 리더가 되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본분을 지키는 일, 내가 구성원으로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 경청, 현장 경험을 통한 내공

안산 차앤박피부과의 신입직원 교육은 현장 업무인 레이저실에서 시작된다. 입사하자 마자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기 보다는 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전문가로 발전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다.

"입사하고 2년 넘게 레이저실 담당이었어요. 원장님을 수행하면서 원장님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피부 관련 고급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는데요. 평소 말수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때의 현장 경험 때문



인 거죠. "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청'이다. "병원에는 매일 매일이 새로워요. 방금까지 맑음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껴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이젠 좀 내공이 쌓였는지 그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우선 경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경청의 단계에서 고객 불만이 해소되기도 하고요."

## 청춘,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당신에게 차앤박피부과란?'은 웹진 스토리의 공식 질문이다. 한은비 MC가 사전 질의서를 받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한다. 그만큼 지난 5년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청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첫 직장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여행도 다니고, 효도도 하고,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긴 청춘의 시간들이 남아 있지만 그저 그 느낌만 들었습니다."

한은비 MC는 차앤박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하나씩 이뤄 나간 게 많다. 앞으로도 찬란한 청준의 행로는 계속되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버킷리스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당분간 차앤박피부과이리라. 누군가의 청춘의 푸르름과 차앤박피부과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 병원으로서도 영광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그녀의 발걸음에 무한한 애정과 응원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

2019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대상 현장스케치

# 차앤박피부과네트워크

## 전문병의원 분야
## 피부클리닉 부분
# 대 상 수 상




**차앤박피부과네트워크** 가

조선일보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대상**
**전문병의원 '피부클리닉'**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ChosunMedia

Korea Medical Healthcare Awards

'2019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대상'은 올해 1회로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의료기관 및 기업,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어워드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강진형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전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친 후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1단계

## 의료서비스 수준, 이용 편의성, 고객 신뢰도 등의




정량, 정성 평가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朝鮮日報 선정**




김연정 객원기자

**메디컬헬스케어 시상식** 24일 서울 J W메리어트동대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메디컬헬스케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도관흉 더드림병원장, 송석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 소장, 박상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장,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 박성수 봉봉성형의과 대표원장, 이병익 세라젬 부문장, 박종민 가제트병원장, 남준상 한국팜비오 대표, 강진형 강남성모병원 교수(심사위원장), 이세진 서울척척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배의정 연세건우병원장, 이종필 다비치안경체인 상무, 아랫줄 왼쪽부터 이광희 조선일보 AD본부장, 김석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실장, 이영기 세란안과 원장, 유재국 로뎀요양병원장, 노윤우 맥스웰피부과의원 대표원장, 김권배 계명대 동산병원 의료원장, 이기준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부장, 김형오 분당서울대병원 센터장, 김정호 자이의원장, 김혜선 광화문선치과 원장, 염순원 인창요양병원 이사장, 하석준 차앤박피부과네트워크 이사, 임애순 푸른친구들 이사.

2단계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쳤습니다.
전문가 심사에서는

## 의료기술의 전문성, 의료실적과 기여도, 혁신R&D 등을

채점 기준으로 삼아
종합병원, 전문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기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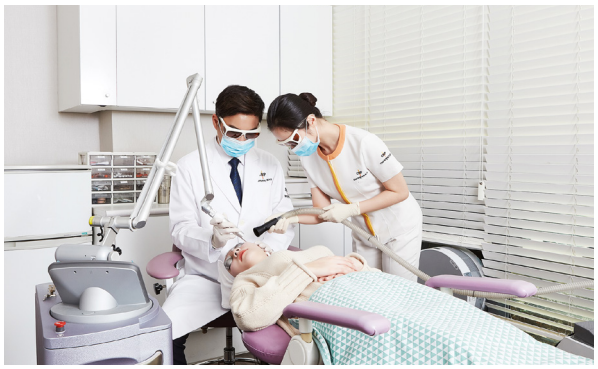
## 8개 분야에서 25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차앤박피부과는 이번 수상의 결과가 24개 병원과 50여 명의 원장님과 200여명의 임직원들의 전문 의료서비스의 결과이며, 23년동안 변함없이 우리 브랜드를 믿고 찾아준 고객님의 성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부주치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지녁의 피부주치의로의 소임 완수가 1차 목표이고 차앤박피부과 브랜드가 나아가는 기본 방향임을 명명하여 더욱 자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 세계 일류 은하계의 일류이기보다는 고객님의 마음 속에 일류이고자 합니다.

더욱 정진하는 차앤박피부과가 되겠습니다.